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 · 문화특별시 지정

민선7기 전주시정 발전 협력 강화

전주시와 전주시 지역 전북도의회들이 전주문화특별시 지정과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 등 시정발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일 송상환 전북도의 회 의장 등 전주시지역에 기반을 둔 15 명의 도의원을 초청해 시정 주요현 안 및 도비확보 대상 사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양원 부시장, 장정규 공무원 등 15명

시, 지역 도의원 초청 간담회 '사람의 도시' 조성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이 참석해 전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선7기 시정방향을 '사람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맑은공기 국가선도지역 지정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조성 등 시정 주요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도시 크고 작은 예산 보조 현안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도의회들에게 내년도 도비에

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민선7기 전주시가 새롭게 출범한 제11기 전북도의회와 소통·공유·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의 탄탄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전주시발전과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하반기 시민 정보화교육 개강

전주시 완산구는 20일 수강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정보화교육을 개강했다.

이 교육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을 포함하여 총 13개과정 22회로 편성 운영하며 예상 수강인원은 총 416여명이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및 활용반(초급), 스마트폰 기초 및 SNS활용, 엑셀(초급·고급), 한글(초급), 동영상 촬영, 이미지편집 등이며, 과정별 2시간 30분씩 1주~2주 과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정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이동 정보화교육도 한다.

수강신청은 각 과정별로 개강 3주 전에 전주시교육통합홈페이지(<http://edu.jonju.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컴퓨터 기초과정에 한해서는 전화로도 접수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220-5600, 53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프레드릭 더렐 프랑스 모험항공협회 이사 일행이 20일 프랑스 등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과 FAI(국제항공스포츠연맹)에 드론축구 등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월드컵 우승팀 프랑스, 전주 드론축구 배운다

프레드릭 더렐 프랑스 모험항공협회 이사 등 방문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 등 저변확대 앞장서기로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시작된 첨단 레저스포츠 드론축구를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로 수출한다.

전주시는 20일 프레드릭 더렐 프랑스 모험항공협회 이사 일행이 프랑스 등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과 FAI(국제항공스포츠연맹)에 드론축구를 등록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더렐 이사 일행은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드론축구장을 찾아 드론축구시연을 관람하고 이어 전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김승수 시장과 함께 유럽 내 드론축구 보급과 국제항공스포츠연맹 등록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프랑스 측은 이번 전주방문을 계기로 전주시의 드론축구 개발 과정과 전국 지부 창단, 드론축구 보급 노하우, 경기운영 노하우 등을 전수 받아 유럽에 팀을 창단하는 등 드론축구 해외보급에 앞장설 뜻을 내비쳤다.

시는 프랑스에서 드론축구에 관심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유럽전역에 드론축구가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첨단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ICT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축구는 기존 드론 제조시장 대부분을 중국이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

례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이로써, 전주발 드론축구는 현재 신개념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전국 16개 지부가 설립되고 100여개 팀이 창단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저변을 넓혀 왔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드론의 활용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레저스포츠 분야와 드론의 융·복합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모험항공협회와 전주시와의 이번 만남은 드론축구 세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드론축구 국내외 저변확대를 통한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해 전주를 세계적인 드론 메카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기습폭행 50대 경찰 출석 거부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건강 악화 이유로 입원 경찰, 출석 일정 재조율

드루킹 특별검사팀 조사 이후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모(50)씨가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천씨가 예정된 출석 요구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 의사를 전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천씨 측에서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해 경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20분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지사에게 접근해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씨는 폭행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입원해 현재까지 병원에 머물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병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천씨에게 출석 통보를 했던 바 있다. 천씨는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천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접촉을 이어가면서 출석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금암1동, 마을계획 수립 문화파출소와 간담회

주민 문화목구에 대한 의견 교환 특성 맞는 프로그램 발굴에 공감

전주시 금암1동 마을계획추진단은 원도심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내 문화예술의 중심인 문화파출소 덕진과 지난 17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암1동 마을계획추진단, 금암1동주민센터, 문화파출소, 전주시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금암1동의 문화화를 통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문화파출소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주민들의 문화목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나눴으며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마을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금암도서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진로직업 인문학 특강

지역의 문화예술품 중심으로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파출소는 기존 치안센터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여러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암1동 마을계획추진단에 따르면 앞으로도 문화파출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금암1동 마을계획 수립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살고 싶은 금암1동 만들기"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자 마을계획추진단장은 "문화파출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자 금암1동장 역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로 살고 싶은 금암1동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며 적극적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송효철 기자

금암도서관,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진로직업 인문학 특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녀의 진로를 위해 부모의 멘토 역할을 강조하는 특강이 전주도서관에서 열렸다.

도서관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도서관 교양교실에서 인문학 저자 초청 강연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맞춤형 진로직업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 브릿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진로직업 인문학 특강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사회의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미래직업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직업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 등 일반성인과 학생 등 50명 이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연에는 박정화 진로진학 전문강사가 강사로 초청돼 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맞춰 효과적 인 진로 로드맵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북푸른학교 강당에서 20일 '학교 이후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전공과 입학식'이 열렸다.

학교 이후 행복한 삶을 준비하다

전북푸른학교 전공과 입학식

20일 오전 10시 30분 학교 이후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전북푸른학교(교장 최춘규) 전공과 입학식이 열린 전북푸른학교 강당. 전북푸른학교의 첫 전공과 입학식에 한껏 기대감이 고조됐다.

이날 입학식에는 사회복지법인 국제인 김승욱 이사장, 국영석 운영위원장, 전라북도교육청 김경호 국장, 안주교육지원청 박숙자 교육장, 완주군의회 임귀현 의원, 및 지역 내 학교장들을 비롯한 내빈, 학부모와 교사 및 재학생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푸른학교에 첫발을 디딘 최호영 외 8명의 전공과 입학생들의 인학을 축하해 하며 참석한 내빈들은 입학생 각자에게 희망나눔 화분을 직접 전달하며 꿈을 응원, 재직교사들은 축하연주로 입학식의 의미를 키웠다.

전북푸른학교 전공과는 전국 최초 학기 중 신설과 3학기 운영으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2018년 입학생은 3학기, 2019년 입학생부터는 4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인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능력과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

전북푸른학교 교장(최춘규)은 인사말에서 "전공과 교육과정은 전북푸른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이며 이는 그동안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며 학교 이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기본업무 충실 · 전문성 겸비"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 취임

부안해양경찰서는 제4대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임재수(49) 총경이 취임했다.

정읍 출신인 임재수서장은 경찰간부후보 49기로 해양경찰청에 입문, 원광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졸업했다.

신임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취임식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취임사 대신 직원과 간담회를 하는 등 탈 권위적 행보로 눈길을 끌었으며,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영광이다.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본업무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겸비하여, 업무에 대한 소신과 지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서장은 해양경찰청 혁신기획단, 행정자치부 통합행정혁신 추진단, 동해 태안 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해양경찰청 항공기회계장을 역임하고, 총경으로 승진 후 서해지방청 수사정보과장으로 근무해오다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전임 박상식 부안해양경찰서장은 동해지방청 기획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안=이옥수 기자

귀가 여고생 벽돌로 내려친 20대 적발

"헤어진 여친 닳아 저질렀다"

지난달 교제하던 여성과 이별 후 복수심에 휩싸여 피해 여고생, 머리에 부상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 없어 경찰 "도주·재범 우려해 구속영장 신청할 것"

술에 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닳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역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문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30분경 전주시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하던 A(17)양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머리에 부상을 입어 5바늘을 꿰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당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술에 취해 A양이 헤어진 여자친구와 닳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달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젊은 여성에 대한 복수심에 휩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닳은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등을 통해 19일 오후 우이동의 한 빌라에서 문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며 이유 없는 적개심이 생겼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주와 재범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